

‘먹거리 부스 조리 평가’ 실시 해협 인증·유지관리 지원

무주반딧불축제, 방문객들 맛·위생·가격 3박자 두루 갖춘 먹거리 제공

무주군이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방문객들에게 맛과 위생·가격 3박자를 두루 갖춘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먹거리 부스 조리 평가’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오는 20일과 21일 무주상산반딧불 요리교실과 학습시설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한 17개 부스가 참가한다.

무주군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회 추천 심사위원과 위생 분야 전문가 등을 평가단으로 구성했으며 ‘블라인드 심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스 참가자들은 판매 예정인 메뉴 중 3가지를 평가 현장에서 조리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위생복 착용 상태, 손 세척 여부 등의 개인위생 준수 여



부부터 조리도구와 작업장 청결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

음식 평가에서는 가격의 적정성, 기성품 및 일회용품 사용 여부, 무주를 대표할 수 있는 메뉴인지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조리 시간은 메뉴당 10분, 총 30분이 주어지며, 다 회용기에 담아 제출해야 한다.

박찬주 무주반딧불축제위원회 위원

장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의 질을 높이고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축제장 먹거리 부스에 들어갈 음식들에 대한 조리 평가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철저한 조리 평가를 통해 엄선한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무주반딧불축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올해도 바가지요금·일회용품·안전사고 없는 3무(無) 축제를 기본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먹거리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는 9월 6일부터 14일까지 무주군 일원(등나문운동장, 지남공원, 남대천변 등)에서 개최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찾아가는 농업인 가공사업장 전문가 컨설팅 진행

무주군은 올해 초부터 ‘찾아가는 농업인 가공사업장 전문가 컨설팅’을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해협(HACCP) 인증·유지관리를 지원하고 영세 가공업체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진행한다.

대상은 해협 인증 소규모 농식품 가공 28개 업체로 식품위생정보원 전문기 대표와 생활지원 담당 공무원이 함께 업체를 순회, 업체별 계측장비 점검·교정과 해협 인증·가공 원재료 취급 방법 등을 지도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별 애로사항과 소비자 불만 대응 요령, 문제점 등도 함께 컨설팅해 소규모 가공업체 운영을 세심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하현진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생활지원팀장은 “‘찾아가는 농업인 가공사업장 전문가 컨설팅’은 기술적, 경영적 지원을 제공해 농업인의 사업 역량과 소득을 높이고 나아가 지



역농산물 가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컨설팅을 통해 발생 가능한 위해 요소를 미리 예측하고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이외에도 해협(HACCP) 인증 및 품질 유지 컨설팅, 안전관리, 해협(HACCP) 위해 관리 시험분석 검사 의뢰 등에 힘쓰는 한편 농산물 가공사업장의 표준화 사업화 촉진,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기자

‘제19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참가 업체 모집

장수군, 간식·홍보·공방 등 총 45개 부스… 20일까지 군청 축제TF 사무실 방문 신청

장수군은 오는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장수 의암공원과 누리파크 일원에서 열리는 ‘제19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개최를 앞두고 축제에 함께할 참가업체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 레드푸드 축제로 자처하는 장수군은 2007년 첫 개최 이후 19회를 맞이한 이번 축제를 통해 장수 한우와 사과를 비롯한 토마토, 오미자 등 지역 대표 레드푸드의 우수성과 대중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참가업체는 20일까지 장수 축제 홈페이지(www.jangsefestival.com)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장수군청 1층 축제TF 사무실(063-350-2350)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모집 규모는 간식 부스 15개 팀, 홍보 부스 15개 팀, 공방 체험 부스 10개 팀 등 총 45개 팀으로 추정을 통해 지역 농가와 업체가 직접 참여해 장수의 맛과 멋을 알릴 수 있도록 안내 업체 및 단체를 우선 선정하고 이후 관의 신청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참가업체 중 간식 부스는 식음료 등의 취급 품목의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 또는 행사 기간 중 임시허가 중 발급이 가능한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주류 판매 시 관련 허가증 또는 판매 허가의 임시 허가가 필요하다.

홍보 부스는 각종 시책 홍보를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공공성이 있는 부스에 우선권이 주어

진다.

공방 체험 부스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메이마을, 공예 및 수공예 관련 운영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참가 관련 세부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및 축제 홈페이지,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장수군 관광산업과(☎350-23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홍기 축제추진위원장은 “이번 ‘제19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장수 한우와 사과, 토마토, 오미자 등 지역 대표 레드푸드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먹거리, 볼거리를 준비해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창의·적극·투명 공지문화 만들자”

주영환 진안 부군수, 공직자 소통 간담회서 강조

주영환 진안군 부군수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공지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주영환 부군수는 13일 군청 강당에서 국소장 실과·읍면장, 군 전체 실과 팀장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8기 4년 차를 맞은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군 핵심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군정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간부 공무원들은 그간 느꼈던 고민과 개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했다.

6급 팀장급 공무원들도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영환 부군수는 △부서 간 칸막이 문화 해소 및 협업 강화, △적극 행정 추진, △정부 정책 방향 신속 파악·대응, △빈틈없는 재난 대응 태세 유지, △청렴도 향상 노력 등을 당부했다.

주 부군수는 “참제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진안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부서 간 업무 장벽을 허무는 소통 및 협업의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기자

진안군, 광복 기념 독립유공자 유족 오찬 간담회

진안군은 13일 지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4세대 6명을 초청해 광복 80주년 기념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국훈장 수훈자 강신홍·전영상 지사의 유족, △건국포장 수훈자 정종영 지사의 유족, △대통령 표창 수훈자 박창선 지사의 유족이 참석했다.

/진안=우태만기자

간담회에서는 유족들이 선열들의 업적과 생전의 이야기를 나누고,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뜻 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전준성 군수는 유족들과 환담을 나누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선열들의 뜨거운 조국 사랑과 희생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선열들의 뜻을 잊지 않고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소식 통

장수군 생문동, 16~17일

‘토요상설마당’ 개최

장수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이하 생문동 회장 정영모)가 2025 토요상설마당을 오는 16일과 1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2회에 걸쳐 장수누리파크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장수군이 후원하고 생문동이 주관하는 이번 ‘토요상설마당’은 장수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쉽고 친근하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행사로 지역 주민의 문화 나눔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체험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공연과 전시·체험을 위해 총 29개 동호회의 동호인 200여 명이 참여하고 공연자와 관객의 거리를 좁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슬레이트 처리

27일까지 지원 사업 신청

진안군은 오는 27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한 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은 올해 사업 규모는 예산 14억원(국비 8억, 군비 6억)을 투입해 주택 300동,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어린이시설) 20동, 주택 지붕개량 40동 등 총 380동이다.

상반기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102동, 지붕개량 5동을 추진했으며 하반기에 잔여 물량 철거 및 지붕개량공사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의 경우 우선 지원 가구(저소득·취약계층 등)는 전액, 일반 가구는 가구당 최대 700만원,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어린이시설)은 최대 200m이하의 면적에 대해 지원한다.

또한 △지붕개량은 주택 지붕에 한해 우선 지원 가구에는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는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진안=우태만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